

# 〈義 狗 傳〉 攷

權 五 星

<目 次>	
1. 序 言	3. 2. 他 義狗說話의 境遇
2. 〈義狗傳〉의 性格	4. 〈義狗傳〉의 內容
2.1. 韓國 義狗說話의 形成	4.1. 〈義狗傳〉
2.2. 〈傳〉으로서의 成立	4.2. 〈忠狗傳〉
3. 義狗說話의 類型과 內容	4.3. 文學的 意味
3.1. 《太平廣記》所載說話의 境遇	5. 結 言
遇	

## 1. 序 言

〈義狗傳〉은 의로운 개에 대한 列傳이다. 列傳이 으례 人間의 傳記라는 점에서 動物에 관한 列傳은 아래 그 分類에도 들어가지 않았다.<sup>1)</sup> 그러나, 어엿하게 個人文集의 〈傳〉條에 〈義狗傳〉이 자리잡고 있음은 研究의 必要性 을 느끼게 한다. 〈義狗傳〉에 대해서 뿐 아니라 所謂 義狗說話에 대해서조차 書及한 研究業績은 없는 것 같다. 그 文學性을 否定하기 때문인지 關心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불라도 筆者的의 살피 바로 發見되지 않았다.

古來로 人間은 自然과 더불어 生存해 오고 있다. 生活에 대한 認識으로 藝術活動이 이루어질 때 自然是 人間과 함께 예술의 밑바탕에 자리잡게 된다. 특히 動物의 경우 文學的인 素材로 채택됨이 頗繁했다. 神話나 傳說, 民諺 등의 說話 속에는 흔히 動物譚이 存在한다. 이때의 動物은 대개가 생활주변에 있는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존재다. 그중 개는 인간과 友好的 관계 속에 密着된 報恩의 동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개의 報恩譚은 虛構性을 同伴함으로써 文學的인 素材로 충분하리 만큼 인간

1) 徐師曾, 《文體明辨》, “(……)皆傳體也 古今辨而列之 其品有四 一曰史傳 二曰家傳 三曰托傳 四曰假傳 使作有考焉”

의 의식속에 在內하게 된다. 그것이 人口에 膾炙되면서 興味性과 아울러 教訓性의 間接的 表現으로 叙述, 發展되어 文學的인 價值를 지닌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고 본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에 着目하여 소위 義狗說話의 概略的인 類型을 檢討하고 그 內容의 意味를 把握한 뒤 이를 통해 〈義狗傳〉의 性格과 그 文學性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傳〉의 樣式 속에 자리한 ‘動物傳’의 存立可能性에 대한 검토이며 새로운 〈傳〉의 양식의 검토이기도 하다.

## 2. 〈義狗傳〉의 性格

### 2. 1. 韓國 義狗說話의 形成

우리 나라의 義狗 또는 義犬에 대한 이야기는 筆者が 조사한 바에 의하면 高麗 高宗 41年(1254) 崔滋(1188~1260)의 《補闕集》卷中에 실린 것이 최초로 보여진다. 그 다음 《大東韻府群玉》卷11에 실린 〈義犬〉이 高麗 忠烈王 8年(1282)의 이야기다. 그 이후 李朝時代의 것으로는 《東野彙輯》卷 15의 〈義狗救人且復讐〉, 《青丘野談》卷4의 〈吠官庭義狗報主〉 등의 野談集에 실린 것과 個人文集의 〈義狗傳〉 등이다. 물론 口傳說話의 경우 어느 지방이나 散在해 있으나 이는 本稿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것은 본고에서 다룬 〈義狗傳〉이 漢文으로 表記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漢文으로 표기된 文獻說話에 限定해서 살펴보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같은 知識層의 意識 下에 이루어진 작품을 同一線上에서 言及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우리의 文獻的 事實을 통해 볼 때 高麗 末에 비로소 義狗에 대한 關心을 보였다고 본다. 中國의 경우 이미 《搜神記》卷5에 義狗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는 孫權時代라는 明記에서 볼 때 西紀 222年~251年 사이의 作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補闕集》의 경우보다 무려 천년이나 앞선다. 또한 宋代에 李昉 등이 編輯한 《太平廣記》所載 義狗說話도 서기 977년경의 작품이니 우리의 경우보다 약 270년 이상이 앞선다.

《太平廣記》의 說話가 우리의 說話, 小說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상세히 발표된 바 있다.<sup>2)</sup> 義狗說話의 경우 《太平廣記》의 직접적인 영향을

2)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서울, 一志社, 1977.

받았음은 작품내용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또한 최초로 볼 수 있는《補闕集》의 義狗說話가《搜神記》와《太平廣記》의 내용과 거의 相符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3)</sup> 결국 우리의 義狗說話가 중국의 義狗說話의 내용을一次的으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中國 義狗說話의 影響에 의해 우리 說話가 形成되는 데는 두 가지 理由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人間社會에서 일어나는 事件들이 주로 人間間의 問題라는 점에서 보다 특이한 動物과 人間의 이야기에 자연 關心이 集中되지 않을 수 없어 純然한 好奇心과 興味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국의《太平廣記》가 이미 들어 온지라<sup>4)</sup> 충분히 崔激같은 文人們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興味性이 자극되어 이같은 작품을 創作했다고 보아진다. 둘째, 人間間의 問題에서 敎訓的 價值를 提示한다는 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칠 때 인간보다 못한 動物을 통해 교훈적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逆으로 그 効果를 노릴려는 의도에서 創作 또는 口傳說話의 定着을 피했을지 모른다.<sup>5)</sup> 이는《補闕集》의 義狗說話 内容中 “晉陽公命門客作傳記行於世 意欲使世之受恩者 知有以報也”란 句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개의 行爲를 통해 人間들의 背恩을 續正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義狗’라고 ‘義’를 붙이는 이유도 儒教的 見地에서 교훈의 의미를 강조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交感的으로 보기 때문에이라고 할 수 있다.

## 2. 2. 〈傳〉으로서의 成立

本稿에서 다룬 〈義狗傳〉은 啓明大 圖書館 所藏本 金若鑠의 《斗庵先生文集》卷5에 收錄된 傳이다. 本文集에는 〈義狗傳〉外에 〈忠狗傳〉1篇, 〈烈雞傳〉1篇 등 動物에 관한 傳이 모두 세 편 실려 있다. 이 중 〈烈雞傳〉은 本稿에서 개에 관한 傳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제외함을 밝힌다.

〈義狗傳〉은 列傳의 樣式에 속한다. 우선 個人文集의 〈傳〉篇에 收錄되어

3) 이 점은 後章에서 言及될 것이므로 本項에서는 생략한다.

4) 張德顧, 《國文學通論》, 서울, 新丘文化社, 1963, p.121에 서기 1215년 이전에 이미《太平廣記》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많은 뚜자를 가졌을 것이라고 推定함.

5) 崔激가 生存했던 武臣執權時代가 “上流層에 놀려 지내고 收奪을 당하여 오던 農民, 士卒, 奴隸들이 각자에서 亂을 일으키어 官長과 吏胥와 豪族을 殺害 혹은 逐出하고, 州郡을 占據하고, 財物을 掠奪하는 등 下剋上的 態度와 秩序破壞의動亂이 재속되었던”(《韓國史》, 中世篇, 震櫻學會編, 서울, 乙酉文化社, 1980, p.514) 社會였다는 것은 本說話가 형성될 수 있는 内在的 背景이 되었다고 본다.

있다는 점이 他說話와 다르다. 이는 說話로서가 아닌 어엿한 列傳文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列傳이 물론 歷史와 說話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本傳이 他說話의 列傳化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徐師曾이 分類한 〈傳〉의 四品에는 動物에 관한 傳의 언급이 없다. 史傳에 넣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歷史的 人間의 傳이 아니기 때문이며, 假傳으로 보기에는 擬人化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家傳이나 托傳은 더 구나 되지 않는다. 이상의 四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 아님은 〈義狗傳〉이나 〈烈雞傳〉이 列傳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徐師曾의 分類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것을 列傳이 아니라고 할 수는 더욱 없다.

列傳은 周知하다시피 漢의 司馬遷의 《史記》에서 비롯되어 後代 個人文集의 한 樣式으로 발전되어 온 전통적 漢文文體의 하나다. 歷史의 叙述方式인 史傳에 점차 虛構性과 興味性이 加味됨으로써 家傳, 托傳, 假傳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sup>6)</sup> 이들 列傳이 한 인간의一代記를 교훈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列傳이라면 으레 개인의 傳記라는 식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렇기에 假傳의 경우 事物의 傳記라도 擬人化시켜 人間의 傳記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列傳의 系譜와 内容으로 미루어 事物 그 자체의 傳記란 엄격한 의미의 列傳 속에 자리할 근거가 없다. 단지 說話로서 존속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文學樣式이 점차 分化, 發展되는 추세로 볼 때 列傳의 樣式 또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素地는 충분히 있다. 전통적 史家에 의한 史傳의 양식이 個人文集의 列傳으로 서술되어질 때 그것을 “文人傳”이라 한다면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다 個人의 觀點이 細密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고 人間의 問題에서 自然 그 자체의 問題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事物 그 자체의 擬人化되지 않은 列傳이 서술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推論에서 〈義狗傳〉이란 文人的 확대된 觀點 下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前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人間間의 問題提起가 어느 한계에 부딪칠 때 人間과 動物間의 상호 交感的 狀況의 表現은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를 傳統的 列傳의 四品의 어느 하나로 볼 수는 없으며 “文人傳”이라는 ‘變傳’의 一種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6) 推稿,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的研究》, 嶺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pp. 18~22 참조.

本〈義狗傳〉은 傳統的 列傳의 構成을 갖추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에 대한 傳記이나 개의 一代記를 다루지 않은 變傳이다. 개에 대한 이야기이나 개 자체의 傳記的 事實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의 交感의 狀況 속의 特異한 episode의 叙述에 머무른다. 그러기에 他 說話와의 내용상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 점은 결국 本傳이 說話의 列傳化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단순한 說話 그 자체가 아닌 列傳으로서의 要件를 갖추고 있음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 점은 後章에서 살피기로 한다.

결국 義狗에 대한 說話의 列傳化가 〈義狗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列傳의 主題가 儒教의 實踐德目인 忠, 孝, 烈, 義 등이라 할 때<sup>7)</sup> 이미 表題에서 主題를 提示하고 있기도 한 점은 列傳에 대한 作家意識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 3. 義狗說話의 類型과 内容

本章에서 다룬 義狗說話는 中國의 경우 《太平廣記》<sup>9)</sup> 卷437 畜獸4 犬條 上의 15篇과 《搜神記》<sup>9)</sup> 卷5의 1篇이며, 韓國의 경우 《補闕集》<sup>10)</sup> 卷中の 1篇, 《青丘野談》<sup>11)</sup> 卷4의 2篇, 《東野彙輯》<sup>12)</sup> 卷15의 4篇, 《大東韻府群玉》<sup>13)</sup> 卷11의 1篇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제일 많은 話素를 가진 《太平廣記》를 中心으로 類型을 分類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他 作品들의 内容을 살펴보자 한다.

#### 3.1. 《太平廣記》所載說話의 境遇

《太平廣記》卷437 畜獸4 犬條 上下에 收錄된 개에 대한 說話는 모두 36篇이다. 이 중 義狗에 대한 說話는 犬條 上의 15篇이다. 이를 15篇을 話素別로 分類,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7) 抽稿, 前揭書, pp. 26~27.

8) 李昉撰, 臺北, 古新書局, 1977.

9) 王文濡選輯, 《說庫》, 臺灣, 新興書局有限公司刊, 서울, 現代社 影印本, 1982.

10) 《韓國名著大全集》, 서울, 大洋書籍, 1980.

11) 《韓國文獻說話全集》, 서울, 太學社, 1981. (한 表題에 話素가 둘임)

12) 油印本, 大邱, 慶北大 師大 國語學會, 1958. (한 表題에 話素가 넷임)

13)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14) 以下 8類型의 作品의 表題는 각기 그 주인 혹은 關聯者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各類에 해당되는 說話を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類型 1>

1. 주인이 사냥을 나갔다.
2. 뱀(호랑이)이 주인을 물려고 했다.
3. 개가 뱀(호랑이)을 물어 주인을 구했다.

<類型 2>

1. 주인이 술이 취해 들(주막)에 누워 잤다.
2. 갑자기 불이 났다.
3. 주인이 타죽을 지경에 처했다.
4. 개가 몸에 물을 적셔 주위에 뿐혔다(개가 주인을 깨웠다).
5. 주인이 타죽지 않고 살아났다.

<類型 3>

1. 주인이 어두워서 잘못 우물에 빠졌다.
2. 개가 과객에게 주인을 견지도록 했다.
3. 주인이 살아났다.
4. 과객이 개를 사고자 했다.
5. 개가 팔여가도록 물건을 했다.
6. 개가 팔려갔다.
7. 다시 도망쳐 주인에게 왔다.

<類型 4>

1. 貧者가 개들에게 밥을 일어 나누어 주었다.
2. 貧者가 냉이 들이 추위에 멀고 있었다.
3. 개들이 물려앉아 따뜻하게 해주었다.
4. 貧者는 결국 추위와 냉으로 죽었다.
5. 개들이 습피을고 떠나갔다.

<類型 5>

1. 하인(친구, 간통한 치)이 주인을 몰래 죽일려고 했다.
2. 개가 이를 알았다(주인이 이를 알고 개에게 하소연했다)
3. 개가 하인(친구, 간통한 치)을 물어 주인을 살려냈다.

◦ 類型 1 : 華隆(章華)

◦ 類型 2 : 楊生(盧言)

◦ 類型 3 : 楊生

◦ 類型 4 : 趙叟

◦ 類型 5 : 楊寢, 鄭韶, 劉巨麟, 范翊(張然, 柳超, 姚甲)

◦ 類型 6 : 崔仲文

◦ 類型 7 : 陸機

◦ 類型 8 : 郭釗

## &lt;類型 6&gt;

1. 주인의 친구가 개를 탐내었다.
2. 친구가 주인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3. 친구가 주인을 죽였다.
4. 개가 주인의 시체를 지켰다.
5. 개가 살해자를 밟혀내어 처형도록 했다.

## &lt;類型 7&gt;

1. 주인이 고향집에 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2. 개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편지를 전달하고 밥장을 봤아왔다.
3. 개가 죽자 주인이 무덤을 만들려 주었다.

## &lt;類型 8&gt;

1. 주인이 사기행위로 잡혀 관장을 뱋게 되었다.
2. 키우던 개들이 탈려들어 관장을 떼리지 못하게 했다.
3. 월이 가상히 억겨 주인을 용서해 주었다.

義狗說話란 의로운 개의 이야기다. 의로운 개는 결국 人間의 觀點에서 義를 行한 개를 말한다. 곧 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말한다. 이 점에서 本項에서는 개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어 각 유형을 검토하기로 한다.

義狗說話의 내용은 人間의 危機에 개가 등장하여 解決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는 물론 인간(주인)으로부터 평소 은혜를 입고, 인간을 잘 따르며, 인간의 위기에 과거의 은혜를 은혜로 갚는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때 인간의 위기를 惹起하는 對象은 自然的인 것과 人間的인 것으로 나타난다. 自然的인 對象은 類型 1, 2, 3, 4에 해당되고, 人間的인 것은 類型 5, 6, 7, 8에 해당된다.

유형 1, 2, 3, 4에서의 위기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우발적이고 의외의 위기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작용치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며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 때 개가 등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인간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위기는 意識下의 狀況으로 나타나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能力은 있으나 역시 그 해결의 方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역시 前者와 같이 개가 등장한다.

對自然的인 危機의 類型은 유형 1의 경우처럼 잡작스럽게 나타나는 뱀

이나 호랑이와 같이 生命을 위협하는 동물이나 유형 2처럼 솔취해 睡眠狀態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불이나, 유형 3처럼 어두워서 잘못 우물에 빠진다거나, 유형 4처럼 빙들어 추위에 뺨다거나 하는 自然的인 狀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 스스로 危機意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스스로 그 해결방안의 의식 또한 가지지 못한다. 인간이 지니는 위기는 그만큼 紹望的인 상태 속에서 야기되며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개가豫期치 않은 자연과의 사이에서 비롯된 인간의 위기를 혼자 담당하게 된다. 인간이 無意識 狀況에서 당해야 되는 위기를 개가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개가 人間과 異質的인 存在로 표현되어 인간의 위기를 대신 解決해준다. 狀況에 대한 無意識 狀況의 人間과 意識 狀況의 개가 하나의 危機對象에 접근하여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당연히 개의 單獨行爲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간의 役割이란 개의 行爲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可視的 存在에 불과하게 된다. 인간과 개의 관계는 전연 同一視되지 않는다. 개는 인간의 無意識에 대한 意識의 存在로 상황판단을 단독적으로 행함으로써 意外의 危機를 克服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인간과 개의 相互交感의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개의 感情表現만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인간의 위기에 대한 개의 解決방안을 위한 行動 자체가 主가 될 수 밖에 없다. 개의 單獨行爲에 모든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며 急迫한 危機에 반해 解決은 자연 缓慢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sup>15)</sup>

반면에 對人間의in 危機의 類型은 유형 5의 경우처럼 爰通한 妻나 財物을 탐내는 下人, 感情의 對立을 지닌 親友들, 유형 6처럼 개를 탐내는 친구들이 危機의 對象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형 7과 같이 교황에 安否를 전하지 못하는 現實의 어려움이나 詐欺行爲를 함으로써 劑를 받아야 되는 現實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 危機란 평소 積累되어 오던 人間의 狀況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특히 유형 5, 6은 인간의 가장 本能的인 物欲이나 情欲 등의 葛藤에서 비롯된 것 이기 때문에 그 危機意識 또한 예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對象과의 팽팽한 對立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유형 7, 8의 경우는 유형

15) 類型 3에 나타나는 위기의 해결 후 다시 주인을 위해 자신을 팔려 가게 하는 개의 행동에 대한 서술은 해결의 완만함을 보다 잘 이해시켜 주는 화소라 할 수 있다.

5,6과는 달리 삶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어려운 여건이 갈등의 대상이 된다. 이의 갈등의 대상은 유형 5,6보다는 内的으로 維持되는 것이며, 자신의 意識과 行爲 속의 것이기에 表面的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며 위기의식 또한 表面化되지 않는다. 그러나, 現實을 對하고 있는 人間的 狀況의 것이라는 점에서 類型 5,6,7,8을 같은 線上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葛藤對象이 인간적인 것으로 갈등에 따른 위기 또한 意外가 아닌豫期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기된 위기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해 意識狀態의 인간은 이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意識은 있으나 그 能力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개가 등장한다. 평소 인간을 따르던 개는 인간과의 交感的인 能力を 지니고 있다. 人間의 危機를 개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sup>16)</sup>와 人間의 어쩔 수 없는 能力不足에 의한 하소연에 의해 개가 아는 경우<sup>17)</sup>로 가를 수 있으나 모두다 개와 인간의 同一한 意識의 組合으로 나타난다. 곧 상황에 대한 의식상태의 인간과 개가同一한 感情의 交換으로 하나의 위기에 대처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人間과 개는 이 경우 異質的인 存在가 아닌 一體가 되어 나타나며 危機意識을 같은 感情으로 받아들여 그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의 등장으로 인한 解決의 事件은 危機가 緩慢함에 비해 急迫하게 이루어진다. 해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인간과 개가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느냐는 점에 그 촛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결국 유형 5,6,7,8은 위기의 사건이 叙述의 主가 되며 거기에 등장하는 개는 평소 人間과의 親密한 關係의 表現을 相對的 人間에 대해 主人과의 同一한 感情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以上의 分析을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對自然的 危機樣相>

- 의외의 위기
- 위기 금박, 해결 완만
- 해결이 서술의 촛점

<對人間的 危機樣相>

- 예기된 위기
- 위기 완만, 해결 금박
- 위기가 서술의 촛점

16) 類型 5 中 楊寢, 鄭韶, 劉巨麟, 范翊, 類型 8.

17) 類型 5 中 張然, 柳超, 姚甲, 類型 7.

18) 이 경우 유형 6은 위기 자체의 심각성에 비해 인간의 무능력이 극에 달하여, 개의 해결방안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최종적인 주인의 원수 갚음으로 그 해결방안을 마무리짓고 있다. 결국 인간과 개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위기 자체에 서술의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형 5,7,8과 동일하다.

- |                 |                 |
|-----------------|-----------------|
| ◦ 인간 ; 무의식 상태   | ◦ 인간 ; 의식 상태    |
| 개 ; 의식 상태       | 개 ; 의식 상태       |
| ◦ 개와 인간의 異質化    | ◦ 개와 인간의 同質化    |
| ◦ 개의 감정표현위주     | ◦ 개와 인간의 교감표현위주 |
| ◦ 유형 1, 2, 3, 4 | ◦ 유형 5, 6, 7, 8 |

### 3. 2. 他 義狗說話의 境遇

《搜神記》所載 義狗說話는 前項의 유형 2에 속한다. 단지 附隨的으로 自然的인 爐火가 아닌 사냥 나간 太守의 人爲的인 發火挿話, 火災鎮壓後 개가 지쳐 죽는 挿話, 주인이 깨어난 뒤 통곡하는 挿話, 太守가 이 사실을 알고 人間의 教化를 위해 개를 肆事 지내주는 挿話가 추가되어 해결단계가 보다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내용의 골격화로는 유형 2와 동일하다. 결국 《搜神記》所載說話도 자연에 의한 의외의 위기와 개에 의한 해결의 사건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무의식상태의 인간이 의식상태의 존재가 됨에 異質的 存在로서의 개의 행동에 同感함으로써 異質的 存在와 同質化되지 못함을 自覺하여 통곡한다는 점이 이 작품 해결부분의 주요한 화소로 추가되어 있다. 그하기에 太守가 개를 인간과 同質化시키려는 의도에서 衣冠을 갖추어 무덤에 장사 지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인간과의 갈등양상이 보여주는 인간과 개의 同質化 問題에 접근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의 義狗說話가 中國 說話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음을 前章에서 言及했다. 우리의 文獻上 최초의 의구설화라 볼 수 있는 《補闕集》所載說話의 경우 《太平廣記》와 《搜神記》의 경우와 동일한 화소를 지니고 있다. 곧前述한 유형 2에 속한다. 本說話는 특히 《搜神記》의 내용과 흡사하다. 本說話와 《搜神記》의 說話를 内容의 段落으로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 <搜神記>

1. 吳王 孫權時節 李信純이란 襄陽 紀 南人이 있었다.
2. 집에 黑龍이란 개 한 마리를 걸었는데 어디를 가나 함께 따르게 했으며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다.
3. 어느 날 信純이 성 밖에서 크게 취

#### <補闕集>

1. 居寧人 金益人이란 자가 있었다.
2. 집에 개 한 마리를 심히 아껴 걸었는데 개도 또한 그를 따랐다.
3. 益人이 취해 집에 누워 잠들어 버렸

- 해 돌아오다 풀밭 가운데 누워 잤다.

4. 태스가 사냥을 나가다가 풀이 무성  
함을 보고 불을 지르게 했다.

5. 순풍이 불이 信純이 있는 곳으로  
불이 다가왔다.

6. 개가 信純의 옷을 잡아당겨 깨웠으  
나 끌짜하지 않았다.

7. 개가 근처에 있는 내에 가서 몸에  
물을 쪘서 주위에 뿐려 불이 번져오  
지 못하게 했다.

8. 개가 지쳐서 죽었다.

9. 信純이 깨어나 전후사정을 알고 통  
곡했다.

10. 태수가 가장히 역계 의관을 갖추어  
장사지내도록 했다.

11. 지금 紀南에 높이 10장이 넘는 의  
구총이 있다.

4. 불이 갑자기 일어났다.

5. 불이 盖人이 있는 곳으로 번져왔다.

6. ×

7. 개가 근처의 내에 가서 몸에 물을  
.WEST 주위에 뿐려 불이 번져오지 못  
하게 했다.

8. 개가 지쳐서 죽었다.

9. 盖인이 깨어나 개의 자취를 보고 술  
펴하여 감정을 노래로 표현했다.

10. 통분하여 장사 지내주고 지팡이를  
꽂아 뜻을 나타내었는데 그것으로 인  
해 그 지명을 蕤樹라 했다.

11. 晉陽公이 門客에게 命해 개의 傳記  
를 지어 世上에 전하도록 했다.

위의 對比에서 알 수 있듯이 두 說話는 内容上 相符한다.<sup>19)</sup> 단지 단락 6이 本 說話에 빠져 있으며 《搜神記》說話의 경우보다 dramatic 하지 못하다. 단순한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갑작스런 爐火가 대단히 意外的인 危機로 나타난다. 《搜神記》의 경우는 보다 因果關係가 푸렷하여 전체가 보다 有機的인 秩序를 지니고 있다. 그 외는 兩者가同一하다. 時代의 으로 千年間의 거리가 있으나 오히려 後代의 本說話가 構成의 으로 未熟함은 形成되는 과정에서前述한 두 번째의 이유인 教訓性的의 강조에 主眼點을 두고 《搜神記》의 說話を 受容한 데 基因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構成 자체보다 内容의 受容이 目적이었기 때문에 자연 주요한 話素의 受容에 더 많은 關心을 기울인 것이라고 보아진다.

本說話의 경우도 의외의 위기에 개가 등장하여 상황에 대한 無意識狀態의 인간을 구해 준다는 내용이다. 역시 위기가 급박한 반면 해결은 완만하며 그 해결단락은 하나의 傳說的인 要素를 포함, 附記하고 있다. 또한 教

19) 두 설화는 《太平廣記》所載說話보다 복잡하고 유기적인 질서를 지닌 구조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보아진다.

訓의인 축면의 강조가 개에 대한 傳記<sup>20</sup>의 作成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sup>21</sup> 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의로운 행위 자체를 人間의 行爲에 對比시켜 人間의 現實世界에 受容시키고자 한다. 단순히 개의 軟弱에 대한 人間으로서의 報償의 表現을 무덤에 葬事 지내주는 것에 그치는 《搜神記》의 경우에 대해 本說話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에 대한 傳記를 지음으로써 人間의 不正의 속성을 교화시킬려는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 이는 결국 개의 행위를 하나님의 흥미거리 이상의 인간생활의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한 作家意識의 作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大東韻府群玉》 所載 〈義犬〉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忠烈王 8年(1282) 京城에 盲兒가 한 명 있었다.
2. 父母가 모두 病死했다.
3. 훤히 한 마리와 함께 살았다.
4. 길에 나갈 때는 개꼬리를 잡고 나갔다.
5.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개는 먼저 달려들어 먹지 않았다.
6. 盲兒가 목마르다고 하면 개가 우물에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인도하여 돌아온다.
7. 盲兒는 투모에게 태어났지만 개에 의해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8. 인근에서 이 개를 義犬이라 칭했다.

本說話는前述한 8유형 가운데 보이지 않는 話素로 이루어져 있다. 창님인 주인을 위해 獻身하는 내용이다. 本說話의 갈등은 현실생활의 어려움에서 빚어지는 人間의in 것이며 예기된 위기에 대한 개의 해결이 주된 話素다.

本說話의 인간과 개는 交感的인 관계로 나타난다. 꼬리를 잡고 다니는 인간과 인간의 목마름이 우물로 인도하는 개는 같은 感情上의 存在이며 그려기에 인간은 개와 父母를 같은 次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는 주인을 위해 음식을 먼저 먹지 않는 上下의 級階意識을 지닌 人間과의 同質의 存在로 叙述되어 있다. 狀況에 따른 意識狀態의 인간으로

20) 이 때 '개의 傳記'란 후 〈義狗傳〉이 아님을 한다.

21) 《補闕集》卷中 “(……) 盖仁既醒 見狗迹悲感作歌寫哀 起墳以葬 植杖以誌之 枝成樹 因名其地爲獒樹 樂譜中 有犬墳曲是也 後有人作詩云 人恥呼爲畜 公然負大恩 主危身不死 安足犬同論 晉陽公命門客作傳記行於世 意欲使世之受恩者知有以報也.

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위기는 인간적인 감정은 없으나 인간과 交感할 수 있는 狀況에 대한 意識狀態의 개에 의해 解決이 된다. 그러므로, 개는 단락 1, 2의 눈이 멀고 부모가 명사하여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생활의 어려움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本 說話의 主體者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본설화 또한 인간적인 현실의 예기된 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화소란 점에서 위기단락은 완만하며 그 해결은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고통은 父母가 없다는 이유와 장님이란 점에서 비롯되어지며 이후의 모든 생활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 해결은 개의 交感의 行爲 그 자체의 서술로 민족되며, 결국은 盲兒가 당해야 되는 현실의 예기된 위기 자체에 서술의 촛점이 있다.

『青丘野談』에는 前述했듯이 한 表題에 두 篇의 義狗說話가 실려 있다. 이 중 한편은 『東野彙輯』에 轉載되어 있다.<sup>22)</sup> 『青丘野談』所載說話 〈狀官庭義狗報主〉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화>

1. 한 수결과부가 어린 딸과 童婢와 함께 살고 있었다.
2. 어느날 밤 이웃의 某甲이 과부를 겁탈하려 했다.
3. 과부가 힘을 다해 저항했다.
4. 某甲이 세 명 모두 칼로 절터 죽였다.
5. 세 시체가 방안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6. 판문밖에 개 한 마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7. 쫓아도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았다.
8. 원이 피의하게 여겼다.
9. 개가 하는 대로 맡겨두니 동현 앞에 와서 호소하듯 울부짖었다.
10. 고리로 하여금 개를 따라가게 하였다.
11. 차트의 집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시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12. 원이 시체를 부검하고자 했다.
13. 개가 某甲의 집을 가리켰다.
14. 某甲이 알고 도망하였다.
15. 원이 某甲에게 탈리들이 물어 들었다.

22) 『東野彙輯』이 『青丘野談』보다 後刊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崔喜雄, 《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1, pp. 40~42 참조).

16. 원이 살해자를 체포하여 자백받고 처형했다.
17. 원이 세 시체를 후히 장례지내 주었다.
18. 개가 묘곁에서 슬퍼 울부짖고 죽었다.
19. 마을 사람들이 개를 묘앞에 매장했다.
20. 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고 의구총이라 했다.

## &lt;제 2 화&gt;

1. 선산에 있는 개가 주인을 따라 밭에 갔다.
2. 주인이 저녁 늦게 술이 취해 밭에서 누워잤다.
3. 마침 불이 일어났다.
4. 불이 주인 있는 곳으로 번져왔다.
5. 개가 내에서 몸을 쪘아 주위에 뿐려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했다.
6. 개가 기진하여 죽었다.
7. 주인이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
8. 지금 의구총이 있다.
9. 작가의 평

<제 1 화>는前述한 유형 6과 화소상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설화는 유형 6을 기반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위기에 개가 등장하여 그것의 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설화는 인간의 위기에는 개가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은 뒤의 人間의 伸冤的 存在로 개가 등장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해결자로서의 개이나 일반적 유형의 개의 역할과는 다르다. 유형 5의 경우 개는 人間(主人)과 交感的 存在로 자신의 행동을 인간과 同質化의 상태에서 나타내나 본 설화는 죽은 주인의 伸冤的 存在란 점에서 第三者(고을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낸다. 즉, 일단계의 사건이 이루어진 뒤 다음 단계에서 전단계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꾀하기 위해 개는 자신의 힘으로 주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고을 원에게 告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유형 보다 더욱 現實感(realality)을 느끼게 되며 개의 지혜로운 행위에 감탄하게 된다. 물론前述한 유형들에서 보이는 개의 感情의 表現과 交感의 表現등은 본 설화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본 설화의 事實性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보다 現實性을 지닌 그만큼 발전된 형태의 것이라고 보아지

는 것이다.

단락 18에서 원수를 잡은 뒤 주인의 무덤 곁에서 울부짖다 殉死하는 화소는 개의 의로운 행위의 최대의 가치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인간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報償으로서 비석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본 설화는 일반적인 유형에서 보이는 위기와 해결의 단계를 넘어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로서의 伸冤話素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sup>23)</sup>

本說話의 위기는 인간적인 상황의 것이나 意外의 것이어서 급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해결에 주된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해결단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유형 5와 확연한 차이이며 유형 6과도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다. 이 때 交感의in 狀況 또한 표현되지 않으나 고을 원과의 同助者的인 立場을 취함이 일반 유형과의 또 다른 차이다. 즉, 주인과의 親近한 관계를 第三者를 통해 表出시키는構成이다. 고을 원은 개와 같은 입장에서 伸冤을 해 주는 理解者로 나타나며 결국의 개의 行動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副次的 存在로 設定되고 있다.

<제 2회>는前述한 유형 2에 해당된다. 즉, 《搜神記》, 《補闕集》의 경우와 내용상相通한다. 本說話를 《搜神記》의 내용단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搜 神 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本 說 話>

- ×
- 단락 1
- 단락 2
- 단락 3
- 단락 4
- ×
- 단락 5
- 단락 6
- 단락 7
- ×
- 단락 8

23) 本 說話는 결국 <살인사건—고발—검거—신원—순사—보상>의 일화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 2화>는 개주인의 人定事實의 기록이 전연 없으며 《補閑集》의 경우와 같이 개가一次的으로 주인을 깨우는 話素도 없다. 또한 개를 장사지내는 話素도 없다. 그러나, 간단한 내용에 비해 <제 1화>, <제 2화>에 대한 作者의 評이 장황하게 叙述되어 있다.<sup>24)</sup> 이는 역시 義狗의 行爲를 통해 人間의 教化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짓어졌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東野彙輯》에는前述했듯이 《青丘野談》의 <제 1화>가 <제 4화>로 轉載되어 있으며 다른 세 頁이 또한 함께 실려 있다. <義狗救人且復讐>란 하나의 表題에 《青丘野談》의 경우처럼 네 頁의 說話가 함께 실려 있는 것이다.

<제 1화>는 妻와 僧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해 준다는 話素로前述한 유형 5와 相符하며 <제 2화>는 주인이 술취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불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개가 물을 쳐서 뿌림으로써 생명을 구해 주는 話素로 유형 2에 符合되며 <제 3화>는 사냥나간 주인이 호랑이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호랑이를 죽이고 주인을 구해 주는 話素로 유형 1에 해당된다. 그런데 유형 1에서 호랑이를 물어 도망가게 함으로써 주인을 구하나 <제 3화>에서는 호랑이를 물어 죽임으로써 주인을 구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의 표현으로 나타남이 다르다. 그러나, 개도 역시 한 달 남짓 있다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얻은 병으로 죽게 된다. 결국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구해 주는 의료운 개의 이야기다. <제 4화>는 《青丘野談》의 轉載로 前項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마지막에 ‘外史氏曰’이라고 列傳의 叙述方式을 취해 作家의 評을 해 놓고 있다.<sup>25)</sup> 이 또한 개를 통한 인간의 教化的側面을 제시해 놓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4) “噫 善山狗之救主死而不恤死 誠得救主之義 而河東狗則初旣訴冤於官家 末又逞憤於晉人 報其仇償其命軀 謂禽獸之無知 而乃若是于比 諸善山狗亦勝矣 嶺南雖是士大夫之冀北而亦何多義狗也”

25) “外史氏曰 寧邊狗之屢教主死 河東狗之爲主報仇 皆人所難辦而狗輒能之 默面者人心耶 人面者獸心耶 噫狗之比於虎何異蠅蠅 然卒能殺猛虎存主人身死 而事聞故曰 勢不以弱智謀者成功 地不以賤行義者立名”

#### 4. 〈義狗傳〉의 内容

本傳은 〈忠狗傳〉과 함께 〈斗庵先生文集〉卷5에 실려 있다. 前章에서 살폈듯이 本傳은 義狗의 列傳이다. 表題에서 이미 列傳으로서의 主題를 内包하고 그 内容을 暗示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義狗傳〉, 〈忠狗傳〉의 내용을 살피고 說話와의 관계를 살핀 뒤 列傳文學으로서의 價值를 밝혀보고자 한다.

##### 4. 1. 〈義狗傳〉

우선 내용을 단락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연일 관청을 지키고 있었다.
2. 개 한 마리가 관문에 들어왔다.
3. 쫓아도 달아나지 않고 계속 들어올려고 했다.
4. 군수가 괴이하게 여겼다.
5. 개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니 동현앞 마당에 와서 호소하듯 울부짖었다.
6. 군수가 뜻을 알 수 없어 군졸로 하여금 개를 따르도록 했다.
7. 백여리 떨어진 큰마을 뒤 작은집으로 들어갔다.
8. 방안에 한 부인이 배에 칼이 꽂혀 죽어 있었다.
9. 군졸이 개에게 주인을 살해한 자를 가리키라고 했다.
10. 개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11. 여러 마을을 거친 뒤 한 마을에서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물어 뜯었다.
12. 아이를 관가에 잡아 들였다.
13. 군수가 아이를 국문하여 자백받았다.
14. 부인이 과부가 되어 친척없이 살고 있었다.
15. 아이가 정조를 뺏고자 했다.
16. 칼로써 위협하자 저항하다 죽었다.
17. 아이는 칼을 끊어두고 혼적을 없애려 했다.
18. 원이 아이를 때려 죽였다.
19. 원이 의관을 갖추어 부인을 장사지냈다.
20. 개가 따라 죽었다.
21. 개를 무덤에 묻었다.
22. 작자의 평

本傳은 《青丘野談》 <제 1 화>의 내용과 흡사하다. 殺害된 주인의 伸冤의 存在로서의 개가 등장한다. 먼저 개의 告發에 이어 殺害者 檢舉事件이나온 뒤 殺人事件의 내용이 후에 이루어져 있다. 화소상 역시前述한 유형 6의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人間的인 葛藤의 예기치 않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개가 대신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다.

단락 1~5는 告發, 단락 6~13은 檢舉, 단락 14~17은 殺人事件의 内容이며 단락 18~19가 伸冤의 逸話이다. 단락 20은 개의 殉死를 나타내며 단락 21은 그에 따른 개에 대한 報償의 내용이다. 즉 本傳은 <告發—檢舉—殺人事件—伸冤—殉死—報償>의 逸話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반유형과 달리 告發에서부터 報償에 이르는 해결단락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前述한 人間的인 狀況 속의 葛藤에서 말미암은 작품의 경토에서 파악될 수 있다.

《青丘野談》 <제 1 화>의 <殺人事件—告發—檢舉—伸冤—殉死—報償>의 내용과 비교할 때 殺人事件內容의 叙述順序만 바뀌어 있을 뿐 本傳과 다름이 없다.<sup>26)</sup>

本傳은 살인사건의 서술순서가 順次的 時間構造에서 벗어나 있다. 즉, 범인의 자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는 列傳의 일반적 叙述構造와 다르게 이루어졌다. 각 逸話가 時間的인 順序를 벗어나 서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편, 本傳은 일반적으로 列傳이 독립된 일화의 나열인 插話의 秩序를 지니고 있는 반면, 각 일화가 因果關係에 의해 연결이 된 有機的秩序를 지니고 있다. 告發에서 報償까지의 각 일화는 有機的인 構成으로 이루어져 전체 내용이 하나의 의미단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構成에서 볼 때 本傳은 일반 列傳의 경우와는 달리 說話와 附通하는 一面을 지닌 說話의 列傳化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이는 곧 動物에 관한 列傳은 설화의 受容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의 興味性과 虛構性을 떨 수 있다는 측면에서 文獻說話에의 口傳說話의 受容과 같은 차원에서 ‘文人傳’의 動物傳을 이해할 수 있다. 文人의 破睡거리로서 동물에 관한 奇異한 설화는 好奇心을 자극하고

26) 이 점에서 本傳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27) 本傳의 구성에서는 일반 列傳의 人定記述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本傳이 列傳으로서의 變傳을 의미하는 것이라 또한 說話의 列傳化를 말해 주기도 한다.

흥미성을 유발하여 허구성을 면 傳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물론 教訓性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내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說話와 列傳의 차이도 바로 이 興味性, 虛構性, 教訓性의 受容의 比重에 달렸다고 본다. 같은 素材를 두고 흥미성과 허구성, 그리고 교훈성의 兩者中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義狗傳〉과 義狗說話의 裏面的 差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곧 現象에 대한 作家意識의 차이이다. 《青丘野談》〈제 1 화〉의 마지막 作家의 評<sup>28)</sup>이나 《東野彙輯》의 評<sup>29)</sup>과 本傳의 마지막 作家의 評<sup>30)</sup>을 보면 이러한 차이는 쉽게 드러난다. 前者は 개의 의로운 행위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本傳은 개의 의로운 행위는 주인인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찍 과부가 되어 죽음을 당한 인간에게 슬픔의 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개의 의로운 행위는 개 자체의 의로운 행위 서술보다 더 現實性이 있는, 다시 말하면 흥미성과 허구성이 보다 排除된 實事性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本傳은 動物傳이지만 일반적으로 人間의 傳記란 列傳의 측면을 일면 고려하여 서술되었다고 보아진다. 즉 說話의 흥미성, 허구성의 위주와 달리 인간에 초점을 두고 개의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개의 행위는 단순한 인간의 物에 대한 感動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의로운 개의 행위는 人間의 性情의 여부에 귀착되어 결국은 인간 자체가 의로운 性情을 가져야됨을 教訓의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개를 통한 간접적인 人間의 性情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교훈성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 4. 2. 〈忠狗傳〉

本傳은 表題가 〈忠狗傳〉인 만큼 주인을 위한 忠誠의 行爲를 나타내는 傳이다. 前項의 〈義狗傳〉과는 달리 주인의 위기라든가 주인의 伸冤을 담당하는 존재로서가 아닌 오직 주인에 대한 忠誠의 表示만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개의 感情表現이나 인간과 개의 交感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점에서 兩者는 同一하다. 本章에서 本傳을 함께 다룬은 表題가 다를 뿐 내용상 〈義狗傳〉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서다. 本傳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아울러 실려 있다. 각篇의 내용을 단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註 24)

29) 註 25)

30) “嗚呼 異哉 誰謂蟲然者能是哉 雖然是必由主人平日之行 有能感於物而然也 唯乎悲夫其主人旣早寡而又遭其變以歿也。”

## &lt;제 1 화&gt;

1. 葛山村에 나의 친구의 아들인 宋生이란 자가 있었다.
2. 그는 같은 군의 김씨인 여자와 결혼했다.
3. 김씨가 결혼하기 전에 개 한 마리를 길렀다.
4. 시집을 때 개가 따라왔다.
5. 매번 김씨가 친정을 가던 반정도까지 따라와서 배웅하고 돌아갔다.
6. 김씨가 돌아올 때도 반정도까지 마중나갔다.
7. 김씨가 병이 들자 개가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8. 김씨의 병이 악화되자 개가 어려날 먹지 않았다.
9. 김씨가 죽자 사람들을 따라 슬퍼 울었다.
10. 김씨의 장례를 치룬 뒤 개가 보이지 않아 찾으니 담장 밑에서 죽어 있었다.
11. 작가의 평

## &lt;제 2 화&gt;

1. 基木郡에 어떤 여자가 개 한 마리를 길렀다.
2. 개 모에게 시달려 장차 고모에게 의지하러 갔다.
3. 가다가 산속에서 눈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4. 맹수가 많은 산이라 개가 밤서도록 시체를 지켰다.
5. 이튿날 갈가마귀 무리가 시체를 보고 모여들었다.
6. 개가 분주히 이들을 쫓았다.
7. 잘가마귀들이 더 이상 죄지 못하고 물러갔다.
8. 시체가 훼손되지 않아 무사히 염死해 되었다.

## &lt;제 3 화&gt;

1. 내가 어렸을 때 늙은 종이 개를 길렀다.
2. 종이 죽어 장사를 지냈다.
3. 개가 낮에는 무덤을 지키고 밤에는 집에 돌아왔다.
4. 작가의 평

<제 1 화>는 일반적인 列傳의 構成方式을 취하고 있다. 단락 1~2는 人定記述이고 단락 3~10은 주인에 대한 개의 충성스런 행위를 나타내는 逸話이며 단락 11은 作家의 評이다. 列傳의 形式을 통한 개의 逸話敘述로 인간에 대한 충성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김씨와 개의 交感的 關係는 배웅과 마중으로 나타나며 김씨가 죽은 뒤殉死하는 것으로 極에 달한다. 주인의 위기를 해결하는 입장이 아닌, 또는 주인의 伸冤의 存在로서가 아닌 단순히 주인을 위해殉死하는 맹목적

忠誠의 표시를 행하는 존재로 개가 등장한다. 내용상 義狗說話나 〈義狗傳〉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이다. 곧 〈義狗傳〉이 아닌 〈忠狗傳〉이라는 表題를 붙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 2화〉는前述한 유형 6과 동일한 話素를 지니고 있다. 즉, 주인의 시체를 갈가마귀로부터 지켜 시체를 훠손시키지 않고 장례지낼 수 있게 한다. 유형 6에서의 伸冤話素은 本傳의 경우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단순히 시체보존의 話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義狗가 아닌 忠狗로 表題되어 있다고 본다. 즉, 주인에 대한 忠誠의 표시가 시체보존의 話素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제 3화〉는 주인이 죽자 무덤을 지키는 개의 행위만으로 나타나 있다. 이 또한 주인에 대한 義의 표시가 아닌 맹목적인 忠誠의 행위이다. 단순한 하나의 逸話의 제시로만 나타나 있어 개의 인간에 대한 忠을 그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의 세 편은 개의 맹목적인 忠誠의 행위가 因果關係가 아닌 插話의 인 秩序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개의 충성스런 행위를 통해 列傳의 일 반적인 教訓性의 問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前述한 義狗說話나 〈義狗傳〉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虛構性과 興味性이 보다 排除되고 충실히 事實性에 기초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具體的인 地名이나 作家와 관계 있는 人物들의 개에 대한 일화를 서술하고 있음은 이러한 事實性에 우선 기초함을 뜻한다. 이는 義狗說話나 〈義狗傳〉이 主題로 設定한 것이 〈忠狗傳〉이 主題로 設定한 것보다 더 많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흥미성과 허구성을 가미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義狗傳〉의 경우가 인간의 위기와 그 해결의 話素가 주된 것인데 반해 〈忠狗傳〉의 경우는 그러한 위기와 해결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히 개의 맹목적인 주인에 대한 충성스런 행동의 표시만이 제시되기 때문에 자연 드라마틱한 사건의 제시가 나타나지 않고 作家의 觀點 안에서 일어나는 事件 그 자체만이 허구성이거나 흥미성이 가미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서술될 뿐인 것이다. 이 점에서 〈義狗傳〉보다 〈忠狗傳〉이 列傳의 內容이나 形式을 더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보아진다. 곧 〈제 1화〉나 〈제 2화〉의 경우 列傳의 일 반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주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本傳도 教訓性의 提示를 그 目的으로 한다. 그러나, 人間의 教化.

를 위해 간접적으로 개의 행위를 통해 드러낼 뿐이다.<sup>31)</sup> 本傳에 나타난 作家의 評에서 義狗說話의 경우와 같이 개의 행위 자체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本傳을 짓는다고 했다.<sup>32)</sup> 이 점은 〈義狗傳〉의 評에 나타난 人間이 바른 性情을 가질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보다 教訓性의 비중이 약함을 뜻한다.

#### 4.3. 文學的 意味

〈義狗傳〉은 우선 의로운 개에 대한 列傳이란 측면에서 그 文學性을 밝힐 수 있다. 또한 說話의 列傳化한 측면에서 그 文學性을 지적할 수 있다.

〈義狗傳〉은 文人의 文集에 수록된 列傳이다. 列傳의 主題가 원래 儒教的 實踐德目의 具現이란 점에서 〈義狗傳〉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表題에서 이미 이러한 主題意識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 主題意識을 사건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는 興味性과 虛構性을 動員할 때 容易해지며 作家 또한 그러한 觀點을 表明할 때 보다 쉽게 서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義狗傳〉은 列傳이라는 事實性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興味性과 虛構性이 表現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義狗傳〉의 형성과정에서 說話의 受容이 지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 설화의 성격이 노출되어지며, 작가의 文學的인 力量이 加味되어져 하나의 列傳文學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列傳이란 점에서 說話의 경우보다 教訓的인 측면에 많은 比重을 두고 있음은 自明하다. 단 순한 紅美에서 나아가 教訓的인 目的을 一次的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문학의 教訓的 機能을 보다 충실히 履行하고 있는 것이다.

列傳이 人間의 傳記란 점에서만 살릴 때 動物이나 植物 등의 事物에 관한 傳記는 단지 ‘假傳’이라는 擬人化된 상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 동물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傳記化시킴은 흔하지 않다.<sup>33)</sup> 이 점은 徐師曾의 四品 가운데 이들에 관한 傳의 分類項目이 없음에서 살릴 수 있다. 그런 데, 〈義狗傳〉이란 독특한 列傳의 樣式이 발견됨은 列傳의 範圍를 넓혀주는 一次的 意義를 지니는 것이라 보여지며 說話의 列傳化를 분명히 제시

31) <제 1화> 評 “異哉 忠矣 人或有食人之祿 而不以忠報者何哉。”

32) “……或主死葬而不忘其恩 守其塚以報之……” 不傳而沒之 非義也 遂作忠狗傳……”

33) 義狗에 대한 古小說이 보이지 않음에서 義狗說話와 義狗傳의 文學的 價值糾明은 계속해서 그 자체로 밝혀져야 되리라고 본다.

해주는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판명된다.

〈義狗傳〉의 文學性은 列傳 그 자체로 볼 때 構成上 變傳이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으며 說話의 列傳化란 점에서 動物과 人間의 交感的 關係를 통한 興味性과 虛構性의 内包를 의미한다고 본다. 곧 文學의 敎訓의 機能과 快樂的 機能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列傳의 일반적 구성방식을 벗어나서 보다 說話에 가까운 형식을 취함으로써 列傳의 새로운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說話의 列傳化를 통해 그 移動過程에서 나타나는 作家의 意識을 살필 수도 있다.

## 5. 結 言

지금까지 論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義狗傳〉은 《搜神記》, 《太平廣記》등에 收錄된 中國說話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補闕集》, 《大東韻府群玉》, 《青丘野談》, 《東野彙輯》등에 收錄된 說話에서 列傳化된 것이며, 動物을 통한 人間教化의 目的으로 形成되어졌다고 본다.

둘째, 〈義狗傳〉은 義狗에 대한 列傳으로 義狗說話에 관심을 가진 文人們에 의해 叙述된 ‘文人傳’으로 形式上 變傳에 속한다. 그러므로 一般的인 列傳의 形式인 義狗의 一代記에 총점을 맞추지 않고 개의 感情이나 人間과의 交感의 行爲의 表現에 中心을 두고 있다.

세째, 義狗說話의 類型은 《太平廣記》所載說話를 中心으로 살필 때 8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危機의 生成과 그 解決의 內容段落으로 살필 때 크게 對自然的인 것과 對人間的인 것으로 對別된다. 對自然的인 類型에서는 意外의 危機가 나타나며, 狀況에 대한 無意識狀態의 人間과 意識狀態의 개의 異質化에 立脚한 개의 강정 자체의 표현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위기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 해결은 완만하여 해결단락에 서술의 총점을 맞추어진다. 반면에 對人間의 類型에서는豫期된 危機로 이루어지며, 狀況에 대한 意識狀態의 人間과 개의 同質化에 立脚해 人間과 개의 交感을 위주로 서술되며, 위기는 예기된 만큼 완만하고 그 해결이 급박하게 나타나 위기의 서술에 총점이 맞추어진다.

네째, 《斗庵先生文集》卷五에 收錄된 〈義狗傳〉은 〈告發—檢舉—殺人事一件—佈冤—殉死—報償〉의 有機的 秩序에 의한 逸話의 연결로 이루어져 일

반적인 列傳의 捕話의 秩序에 의한 逸話의 연결과 다른 說話의 列傳化를 암시해주고 있다. 本傳은 《青丘野談》所載說話中 <제 1화>의 내용과同一하다. 그러나, 本傳에서는 개의 의로운 행위가 人間의 物에 대한 感動與否에 달려있다고 보아 人間은 올바른 性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教訓的側面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 說話의 경우는 개의 의로운 행위 자체에 비중을 두어 교훈성보다는 興味性에 초점을 둔다. 〈忠狗傳〉은 捕話의 秩序를 갖춘 典型的 列傳의 構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인에 대한 단순하고 맹목적인 忠誠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虛構性과 興味性이排除된 事實性의 表現이며 〈義狗傳〉만큼 教訓性을 부각시키지도 않는다.

다섯째, 〈義狗傳〉은 동물 자체의 서술에 기반한 列傳으로 ‘文人傳’에 속하고 變傳이란 측면에서 전통적인 列傳의 범위를 넓혀주는 일차적 근거가 되며 說話의 列傳化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 이동과정에 나타나는 作家意識을 살필 수 있게 한다.

以上에서 밝혀진 바는 하나의 試論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충분한 資料의 提示가 없었으며 說話와 列傳의 概念上の 분명한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本稿의 限界點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度外視되었던 ‘動物傳’이란 새로운 樣式의 言及이란 측면에서 조금의 意義는 있을 줄로 믿는다. 특히 우리 古小說 가운데 義狗에 대한 小說이 보이지 않음에서 說話나 列傳의 장르에 머물고 있는 義狗에 대한 이야기의 검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分野의 계속적인 研究를 통해 本稿의 限界를 극복하고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을 附記해 둔다.